WWF

SUSTAINABLE FINANCE REPORT 2021

RESPOND -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 기반의 포트폴리오

2021 책임투자 프랙티스 분석 보고서

감사의 글

공동저자:
Marie Gauthier, Keith Lee

WWF-Singapore(세계자연기금 싱가포르 본부)는 도움을 주신
다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licia Liono, Xiao Bo Wei (Darius)

문의:
Marie Gauthier, Assistant Vice President,
WWF-Singapore - mgauthier@wwf.sg

Keith Lee, Senior Vice President,
WWF-Malaysia - keith.lee@wwf.org.my

이 보고서는 아시아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Asia Sustainable Finance Initiative) 활동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Good Growth Partnership의 일환으로 이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에 감사드립니다.

이 간행물에 제시된 의견은 전적으로 저자의 것이며,
반드시 GEF 또는 GGP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및 디자인:
Catherine Perry (swim2birds.co.uk)

발행일: 2021년 1월
발행처: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Singapore
이 간행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할 때는 간행물 제목을 언급하고
상기 발행인이 저작권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문 발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인 : 홍윤희
발행처 : WWF-Korea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발행일 : 2021년 5월
번역감수 : 권수현, 안혜진, 이경희, 정서영, 권연주
국문판 디자인 작업: 모아베이
표지 사진: © Damsea / WWF
카리브해 맹그로브 나무를 해수면 기준으로 분할 촬영한 모습.
수면 아래로 나무 뿌리와 물고기 떼가 보인다.

WWF(세계자연기금)은 세계 최대 비영리 국제자연보전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500만 명 이상의 후원자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WWF는 금융의 방향을 바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 부문과 혁신적으로 협력하며,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리스크 및 기회 요소가 주류 금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접근법에는 WWF의 자연보전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담수, 에너지, 환경, 식품 등의 핵심 현안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들과 구축하는 파트너십도 활용됩니다. 국제적으로 지속가능금융 분야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WWF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을 포함한 선도적인 이니셔티브 및 녹색채권(green bond) 관련 국제표준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WWF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위해 전 세계의 대형 자산보유기관(asset owner)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WWF는 주요 산업 부문의 대출 및 투자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사회적 리스크에 관한 통찰적 지식과 데이터를 제공하며, 심각한 연구 공백 문제를 해소해 왔습니다. 또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의 개발에 일조하고, 지속가능금융 의제의 진전을 위해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결집시켜 왔습니다. WWF-Korea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는 지난 2014년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f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 WWF 2021

목차

책임 투자 배경 2

RESPOND의 목표와 사용자 4

방법론과 범위 6

결과 요약 10

주요 결과 및 권고안 12

부록: RESPOND 프레임워크 19

책임 투자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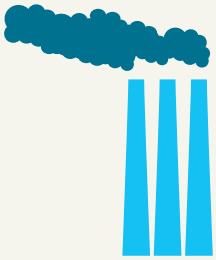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은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코로나19 위기는 보건, 경제, 사회복지 및 전 세계 안정에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다. 아울러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대규모로 진행되는 서식지의 농지 전환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과 같은 광범위한 환경적 위협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기회복 및 경기부양 대책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 및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국가 경제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및 **'세계 지도자들의 자연을 위한 선언(Leaders' Pledge for Nature)'**에 맞추어 조정하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다.

구조적 변화를 위해 행동에 나선 각국 정부와 관리감독기관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넷제로(net-zero) 목표 달성을 선언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목표들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 따를 수 있는 강력한 선례이며, 궁극적으로 금융 부문의 규제 이니셔티브를 수반하게 된다. 한편 중앙은행과 관리감독기관에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가 금융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위협적 영향을 인식하여 행동에 나서고 있다. 83개 회원 기관 중 12개 기관이 아시아에 있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 녹색협의체(**NGFS**,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기후 및 자연과 관련된 구조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권고안은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기후 및 환경과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며, 중앙은행의 포트폴리오 관리 활동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시킬 것 등 다양한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권고안 중 일부는 이미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 예로 **싱가포르**와 **홍콩**의 금융감독기관에서는 자산운용사(asset manager)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 • 기후 리스크 관리 및 관련 공시에 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지속가능성과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여 280개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각국의 기후 정책과 목표로는 **+3.1°C** 시나리오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맞춘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산업 부문 또는 지리적 위치를 막론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대출, 투자 또는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기관 또는 기타 금융기관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고 이를 가속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다.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는 총 운용자산(AUM) 규모가 미화 100조 달러 이상인 3,000여 개 서명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아시아의 서명 기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서명 기관은 **77%** 증가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일본 제외)의 경우에는 **40%** 이상 증가했다.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Disclosures)를 지지하는 금융기관의 수도 현저하게 늘었다. 2020년 12월 기준 802개 금융기관이 TCFD 권고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중 148개는 아시아 금융기관이다.



총 AUM 규모가 미화 52조 달러 이상인 500여 개 투자기관에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투자기관들은 TCFD 권고안의 지지를 표명하고 이행하는 활동 외에도,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와 같은 협력적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참여와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포트폴리오 기업을 대상으로 TCFD 권고안에 맞춘 공시 및 탈탄소화를 권장하기 위한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총 운용자산 규모가 52조 달러 이상인 500여 개 투자기관에서는 '기후행동 100+' 이니셔티브를 통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행동 100+'에 동참하는 아시아 투자기관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평안보험(Ping An)은 2020년 1월 중국 최초의 서명 기관이 되었으며,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GIC는 2020년 11월 '기후행동 100+'와 '기후변화 관련 아시아 투자자 그룹(**AIGCC**,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에 가입했다.

투자기관들은 탈탄소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투자기관의 넷제로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20년 10월에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 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는 투자기관과 기타 금융기관들이 파리협정의 목표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과학기반목표(SBT)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기준 64개 금융기관이 SBT를 설정하기로 서약했으며, 그중 11개 기관은 인도와 일본, 한국, 대만 기관이다. 아울러 **넷제로 자산보유기관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를 구성하는 33개 자산보유기관(총 운용자산 미화 5조1천억 달러)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 공급망과 실물경제 모두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총 운용자산 규모가 미화 35조 달러 이상인 투자기관들로 구성된 '기후변화 관련 기관투자자 그룹(**IIGCC**,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은 2020년 8월에 공공 협의를 위한 **넷제로 투자 프레임워크(Net Zero Investment Framework)**를 출범시켰다. 한편 2020년 12월에는 총 운용자산 규모가 미화 9조 달러 이상인 자산운용사들이 **넷제로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30개 자산운용사(그중 2개사는 아시아 운용사)로 구성된 이 단체는 2050년 또는 그보다 이른 시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 목표가 달성되도록 지원하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과 투자기관들이 기후변화 외에도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의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인류가 건강한 생태계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책입안자들과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외에도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의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0년 6월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네덜란드 금융 부문의 **생물다양성 리스크**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기관들이 생물다양성 손실과 관련된 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 총 운용자산 규모가 미화 5조8천억 달러인 37개 금융기관이 금융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의무를 이행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자연 손실 추세를 되돌릴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금융서약(Finance for Biodiversity Pledge)**'에 가입했다. 투자기관들은 생물다양성 관련 툴과 지표(metrics)의 개발을 위한 협력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4개 자산운용사는 투자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및 생물다양성의 영향을 리스크 평가 및 연구에 반영시키는 방법에 대해 투자기관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생물다양성 평가 방법론 및 툴**의 개발을 의뢰했다. 지표와 툴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7월에는 비공식 워킹그룹인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TNFD**, 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가 출범했다. 금융기관, 민간 기업, 정부기관, NGO 및 싱크탱크 간 협업을 활용하는 TNFD는 2021년 초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태스크포스는 꼭 필요한 공시 프레임워크의 개발 업무를 맡게 되며, 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가 투자 결정에 더욱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SPOND의 사용자별 목표

"RESPOND(Resilient and Sustainable Portfolios that Protect Nature and Drive Decarbonization, 자연보전 및 탈탄소화 추진을 위한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 기반의 포트폴리오)는 지속가능한 탈탄소 미래를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책임투자(RI, Responsible Investment)에 대한 과학기반 접근법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포트폴리오 조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WWF-Singapore가 개발한 프레임워크로, 양방향 **온라인 툴**이다. 상세한 RESPOND 분석 결과가 담겨있는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용자는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 이행 현황 및 책임투자 분야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RESPOND는 책임투자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구조를 체계화되고 **TCFD** 및 **PRI** 권고안에 맞춘 WWF 프레임워크(**부록** 참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RESPOND는 자산운용사들의 강력한 책임투자 역량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파리협정 목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맞추어
금융 흐름을 조정하는 작업을 가속화한다.

현장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후 및 자연자본 리스크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구축을 지원한다.

탈탄소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점점 더 많은 사항을 자산보유기관에서 자산운용사에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사항에 금융 부문과 실물경제를 매개하는 핵심 주체인
자산운용사들이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산운용사:
(2021년 보고서에서 분석되지 않은 대상 포함)

- 자사의 책임투자 역량 및 TCFD/PRI 권고안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 모범 사례를 검토하고 책임투자 부문의 선도 업체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자사의 책임투자 역량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자사의 투자 결정과 인게이지먼트 활동이 포트폴리오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 프랙티스를 도입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자산보유기관:

- 외부 자산운용사 평가 및 위임계약(mandate) 체결 시 과학에 기반한 시민사회 관점을 통해 컨설턴트 평가를 보완할 수 있다.
- 외부 자산운용사와 협력을 통해 운용사의 책임투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예로 기후, 자연자본 및 기타 ESG 리스크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회복탄력성 극대화를 위해 과학기반 기준을 사용하는 방식).
- 운용 자금에 대한 스튜어드십이 기관 및 수익자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 금융감독기관과 수익자들의 증가하는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내부 책임투자 접근법을 개선할 수 있다.

금융규제당국 및 감독기관:

- 자산운용사들이 기후 및 기타 ESG 리스크의 관리를 개선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금융 부문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수익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자산운용사들이 RESPOND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공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관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자산운용업계가 자산보유기관과 체결한 위임계약을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격성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방법론과 분석 범위

금년도 RESPOND 분석은 30개 자산운용사의 영문 공시 자료(상장 주식 투자 관련)에 대한 WWF의 검토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분석 작업의 일환으로 검토된 자료는 최신 연례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책임투자 보고서, 공개 성명, 정책, 투자자 발표 자료, 보도자료, 2020년 10월 31일 기준 자산운용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타 정보, **2020 책임투자원칙(PRI) 투명성 보고서** 등이다.

RESPOND는 자산운용사들이 ESG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방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자산보유기관, 금융감독기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적으로 열람가능한 자료만 고려했다. 분석 대상으로 포함된 각각의 자산운용사에는 공시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금년도 RESPOND에서는 작년에 포함된 22개 유럽 자산운용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업데이트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8개 아시아 자산운용사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듯 분석 대상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아시아의 자산운용사들과 책임투자 분야를 선도하는 유럽 운용사들 간의 비교가 가능해졌다. 아시아 자산운용사들의 벤치마킹은 차이의 정도를 파악하고 아시아 전역에서 책임투자 역량 및 프랙티스의 신속한 개선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시아 자산운용사 선정 기준

운용자산 최소 미화 2천억 달러 이상 규모

RESPOND는 대형 자산운용사에 초점을 맞춘다.
최소 규모 기준은 유럽의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PRI 서명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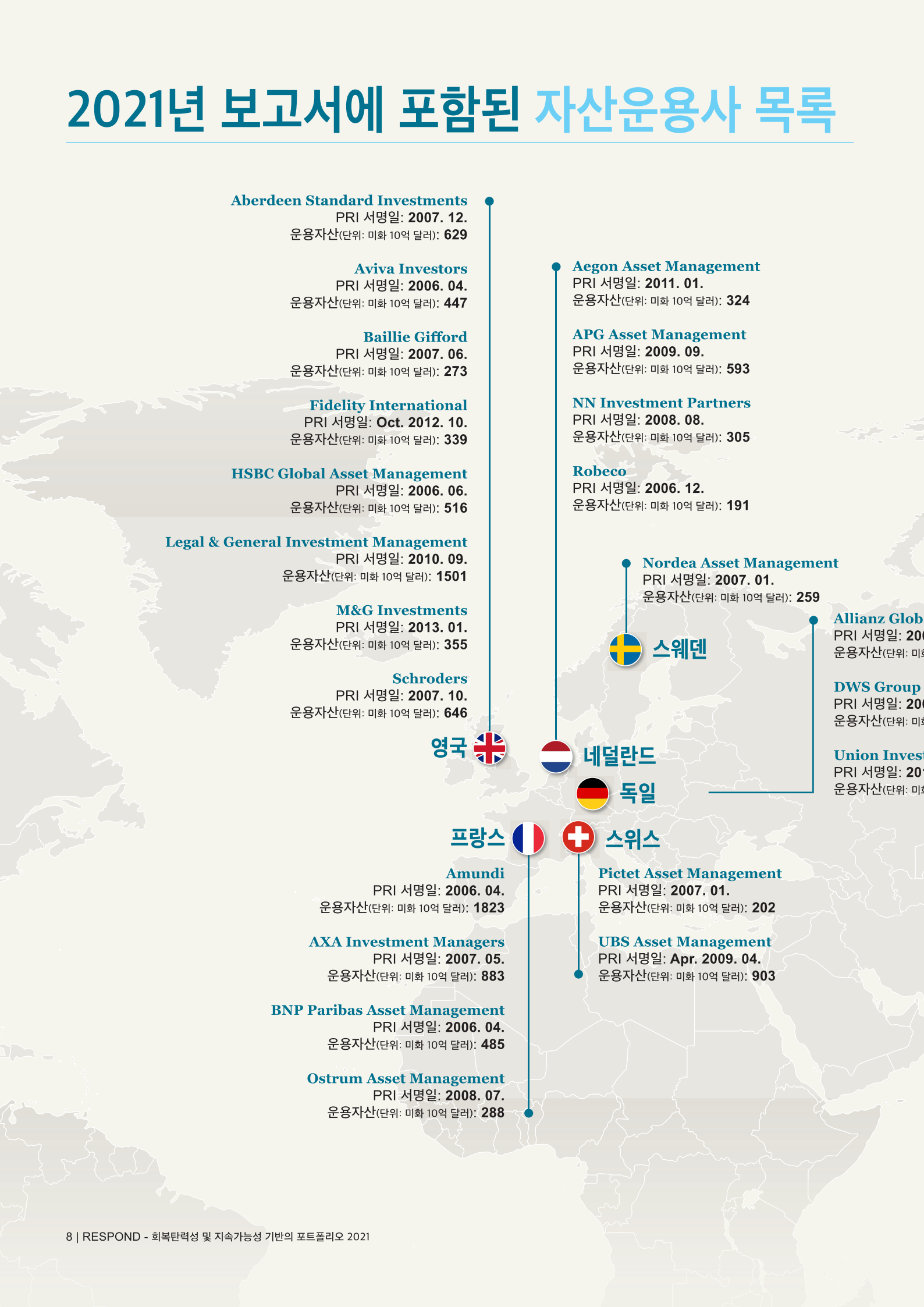
RESPOND는 PRI에 가입하고 PRI 투명성 보고서(및 기타 공개 정보)를 통해 매년 책임투자 활동을 공시함으로써 책임투자를 이미 시작한 자산운용사에 초점을 맞춘다.

2020년 보고서에 포함된 유럽 자산운용사들이 충족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자산운용사 선정 기준	
	운용자산 최소 미화 2천억 달러 규모 및 유럽 소재 본사 이들 자산운용사는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규제 요구사항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투자 정책, 절차 및 성과의 개선 및 공시 압력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다.
	ESG 리더십 정보를 공시한 자산운용사 중 2018년 또는 2019년 PRI 보고 프레임워크(PRI Reporting Framework)의 '전략 및 거버넌스(Strategy & Governance)' 또는 '상장 주식 투자(Listed Equity)' 모듈에서 A+ 등급을 받은 운용사들이다. 이러한 ESG 선도 업체들은 기후변화 이외의 환경 이슈도 다루고 ESG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최신 과학기반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책임투자 이행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타 운용사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아시아 진출 업체 아시아는 기후변화와 자연자본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의 비즈니스 및 금융 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ESG 리더십이 특별히 요구된다.

분석 방법론에 관한 추가 정보는 RESPOND 온라인 툴을 참고할 수 있다.

2021년 보고서에 포함된 자산운용사 목록



총 운용자산 규모:
미화 16조 달러

al Investors
07. 04.
화 10억 달러): 621

08. 02.
화 10억 달러): 846

tment Group
10. 10.
화 10억 달러): 371

China Life Asset Management Company Limited
PRI 서명일: **2018. 11.**
운용자산(단위: 미화 10억 달러): **413**

E Fund Management
PRI 서명일: **2017. 04.**
운용자산(단위: 미화 10억 달러): **201**

중국

Asset Management One
PRI 서명일: **2013. 03.**
운용자산(단위: 미화 10억 달러): **504**

Mitsubishi UFJ Trust and Banking Corporation
PRI 서명일: **2006. 04.**
운용자산(단위: 미화 10억 달러): **399**

Nikko Asset Management
PRI 서명일: **2007. 10.**
운용자산(단위: 미화 10억 달러): **244**

Nomura Asset Management
PRI 서명일: **2011. 03.**
운용자산(단위: 미화 10억 달러): **506**

Sumitomo Mitsui Trust Asset Management
PRI 서명일: **2006. 04.**
운용자산(단위: 미화 10억 달러): **653**

일본

Eastspring Investments
PRI 서명일: **2018. 02.**
운용자산(단위: 미화 10억 달러): **241**

싱가포르

* 2020 PRI 투명성 보고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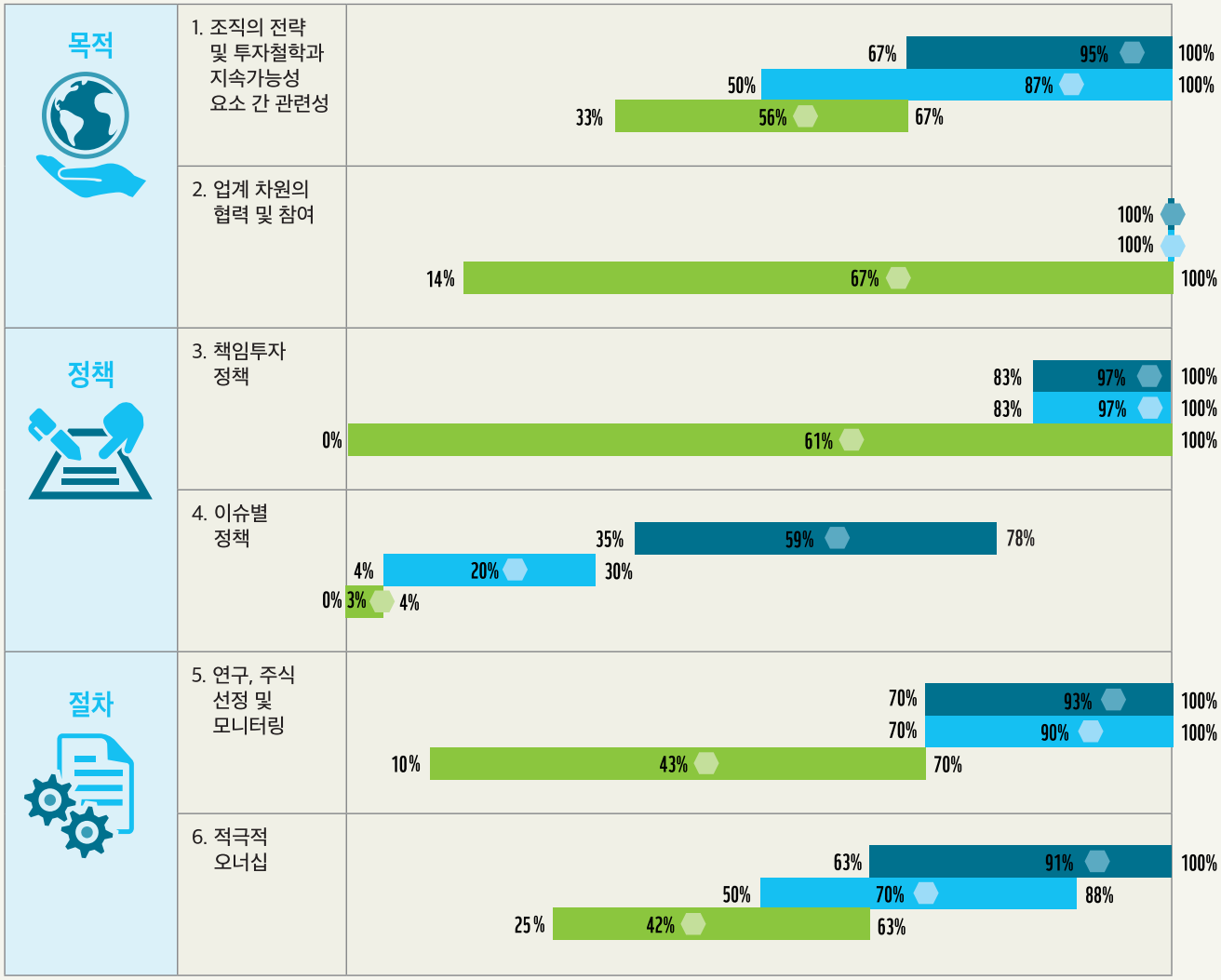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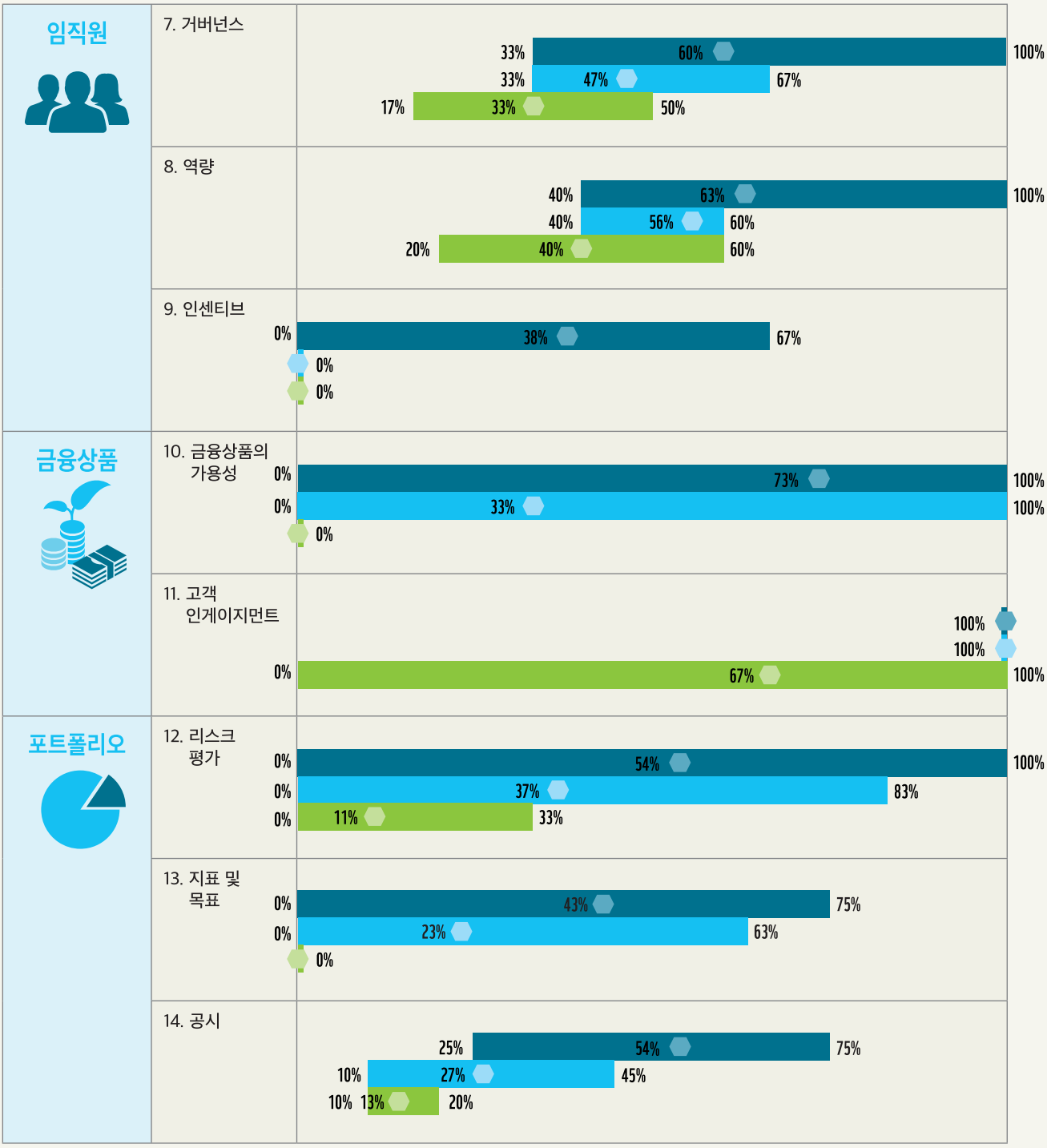
유럽 자산운용사들이 책임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2021년판 RESPOND 보고서에 포함된 30개 자산운용사들은 RESPOND 프레임워크의 전체 기준 중 평균 64%를 충족했다. [그림 1]은 RESPOND 프레임워크의 6개 부문과 14개 지표에서 유럽 자산운용사들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운용사는 기후변화 및 자연자본 손실과 관련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전 세계 자산보유기관들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이행 측면에서 아시아의 자산운용사들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자산운용사들이 RESPOND 프레임워크의 모든 지표에 걸쳐 아시아 지역내 다른 국가의 운용사들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서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림 1] 결과 요약: 지표별 분포 범위 및 평균

범례 : 진청색: 유럽 하늘색: 일본 녹색: 아시아(일본 제외) 6각형: 평균




임직원
7. 거버넌스
33%
60%
100%
33%
47%
67%
17%
33%
50%
8. 역량
40%
63%
100%
40%
56%
60%
20%
40%
60%
9. 인센티브
0%
38%
67%
0%
0%
금융상품
10. 금융상품의 가용성
0%
73%
100%
0%
33%
100%
0%
11. 고객 인게이지먼트
100%
100%
0%
67%
100%
포트폴리오
12. 리스크 평가
0%
54%
100%
0%
37%
83%
0%
11%
33%
13. 지표 및 목표
0%
43%
75%
0%
23%
63%
0%
14. 공시
25%
54%
75%
10%
27%
45%
10%
13%
20%

주요 결과 및 권고안

결과 1:
유럽과 아시아의 자산운용사 모두 책임투자의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목적	1. 조직의 전략 및 투자철학과 지속가능성 요소 간 관련성 2. 업계 차원의 협력 및 참여	30개 자산운용사 모두 지속가능성을 주된 전략적 이슈로 여기고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특히 29개사는 기후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장기 리스크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TCFD 권고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또한 24개사는 자연 손실을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8개사는 사업 목적과 전략에 SDGs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29개 자산운용사가 협력 이니셔티브(예: 투자자 어젠다(The Investor Agenda), 기후변화 관련 기관투자자 그룹(IIGCC) 등) 참여, 어젠다를 제시하는 리더십(thought leadership) 관련 문서 또는 행사를 통한 의식 제고, 기후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끌고 있었다.
정책	3. 책임투자 정책	29개 자산운용사가 자사의 책임투자 관련 목적을 공공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책임투자 정책으로 구체화했으며, 인게이지먼트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정책도 공개하고 있었다.
절차	5. 연구, 주식 선정 및 모니터링	29개 자산운용사가 ESG 동향 파악, ESG 스크리닝 적용 및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ESG 성과에 대한 선도적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25개사가 포트폴리오 구축 절차 및 기업 가치 평가에 ESG 분석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임직원	7. 거버넌스 8. 역량	30개 자산운용사 모두 조직 내 책임투자 감독 및 이행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두었으며, 그중 27개사는 책임투자 감독 및 이행 책무가 궁극적으로 이사회에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30개사 모두 전담 책임투자 전문가를 팀에 보유하고 있었다.

결과 2:
특히 아시아의 자산운용사들은 적극적 오너십 접근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프로세스	6. 적극적 오너십	**8개 아시아 자산운용사 중 1개사만 ESG 관련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보고했다.** 적극적 오너십은 투자기관의 책임투자 접근법 및 프랙티스에서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피투자 기업들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기업이 저탄소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어 적극적 오너십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RESPOND에 포함된 중국의 2개 자산운용사 모두 ESG 이슈와 관련된 일대일 또는 집단적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공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본과 중국의 자산운용사 중 작년에 환경 및 사회 관련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보고한 운용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30개 자산운용사 중 절반이 넘는 운용사가 일정 기한까지 설정된 인게이지먼트 활동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유럽의 자산운용사들은 이 기준과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시 활동이 개선된 유럽 자산운용사는 6개사가 추가된 총 13개사이다. 그러나 유럽 운용사의 3분의 1 이상 및 1개사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운용사는 이 기준에 따른 보고를 여전히 하지 않고 있었다.
포트폴리오	14. 공시	**전체 포트폴리오에 걸쳐 합산된 인게이지먼트 활동 진척 현황 및 결과를 공개한 자산운용사는 전체 30개사 중 3분의 1 미만이었다.** 유럽 22개사는 이 기준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시 활동이 개선된 유럽 자산운용사는 단 2개사가 추가된 총 6개사이다. 8개 아시아 자산운용사도 인게이지먼트 활동 진척 현황 및 결과를 광범위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본의 2개사만 이 기준을 충족했다. **8개 아시아 자산운용사 중 2개사만 의결권 행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유럽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모든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아시아 자산운용사는 단 두 곳에 불과했다.

권고안:

아시아 자산운용사 대상 권고 사항

- 개별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ESG 이슈가 반영되도록 한다.
- **집단적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참여하고, 그러한 협력 이니셔티브에서 자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공개한다.
-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ESG 관련 결의안**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전체 자산운용사 대상 권고 사항

- 투자 대상 기업들이 ESG 요구사항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기한까지의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 모든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걸쳐 **진척 현황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의결권 행사 활동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ESG 관련 안건에 대해 특정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근거를 발표한다.

결과 3:
유럽과 아시아의 자산운용사 모두 ESG 교육훈련, 핵심성과지표(KPI) 및 인센티브가 아직 주류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임직원	8. 역량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 대상 ESG 교육훈련에 관한 공시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 평가 대상 자산운용사 중 22개사가 투자 담당 직원과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ESG 주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22개사의 경우, ESG 교육훈련이 (1) 고위 경영진 및 (2) 이사회 구성원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지 않은 상태이다. 유럽의 2개사와 6개사만 이 기준에 따라 각각 (1)항 및 (2)항의 대상과 관련된 공시를 했으며, 아시아 운용사의 경우에는 전무했다.
임직원	9. 인센티브	**투자 담당 직원,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의 보수 책정 시 ESG 성과를 고려하는 프랙티스는 유럽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초기 단계에 있었으며, 아시아 운용사의 경우에는 전무했다.** 12개 유럽 자산운용사는 ESG 관련 KPI를 개발하여 직원 성과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해당 KPI는 (1) 투자 담당 직원과 고위 경영진 또는 (2)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보수 정책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유럽 22개사 중 9개사와 4개사만 각각 (1)항 및 (2)항의 대상에 대한 ESG 관련 보수 기준을 공개하고 있었다.

권고안:

전체 자산운용사 대상 권고 사항

- 이사회, 고위 경영진 및 투자 담당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ESG 이슈에 관한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이사회, 고위 경영진 및 투자 담당 직원 전체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ESG 성과에 맞추어 조정**한다.

결과 4:
자산운용사들의 기후 전략이 과학기반목표(SBT)에 공고한 기반을 두고 있지 않으며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확실한 요구사항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책	4. 이슈별 정책	**자산운용사의 기후 전략에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확실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29개 자산운용사가 투자 의사결정 절차에 기후변화 관련 요소를 반영시키고 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것이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요구사항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실제로 6개사만(모두 유럽 운용사) 포트폴리오 기업들에 TCFD 권고안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포트폴리오 기업들에 SBT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운용사는 3개사에 불과했다. **부문별 정책 및 배제 정책이 기후 전략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금년도 RESPOND 보고서에는 자산운용사에서 기후 전략과 탈탄소화 전략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탄 및 화석연료 부문의 사업을 통한 매출이 상당한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한도를 포함하여 해당 산업 부문과 관련된 정책을 공개한 자산운용사는, 전체 분석 대상의 4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유럽 7개사에 불과했다.
임직원	7. 거버넌스	**특히 아시아의 자산운용사의 기후 거버넌스와 관련된 진전이 아직 불충분한 상태이다.** 30개 자산운용사 중 절반이 기후 리스크 관리의 궁극적 책무가 이사회에 있다고 명시했다. 그중 13개사는 유럽 운용사이고 2개사는 일본 운용사이다.
포트폴리오	12. 리스크 관리 13. 지표 및 목표 14. 공시	**포트폴리오 차원의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 주된 프랙티스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이다.** 전체 투자 종목 포트폴리오에 걸쳐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는 자산운용사는 13개사(유럽 11개사 및 일본 2개사)에 불과했다. **1.5°C 목표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겠다는 서약을 통해 자사의 탈탄소화 전략을 보강한 자산운용사는 전체 30개사 중 3분의 1 미만에 불과했다.** 유럽 11개사와 일본 1개사만 탈탄소화 전략을 공개하고 있었으며, 그중 7개사만 SBT를 설정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파리협정의 목표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겠다고 서약했다. **아시아 자산운용사들의 기후 공시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9개 자산운용사가 TCFD 권고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TCFD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TCFD 권고안에 맞춘 공개 보고를 하는 운용사는 유럽 15개사와 일본 2개사에 불과했다.

권고안:

전체 자산운용사 대상 권고 사항

- **과학기반목표(SBT)의 설정** 및 **중간 점검 지표(intermediate milestone)**의 공개 등을 통해 **1.5°C 시나리오** 목표 달성과 관련된 기후 서약 및 탈탄소화 전략을 공고히 한다.
- **투자 대상 기업이 TCFD** 권고안에 맞추고 **SBT**를 설정하며 **중간 점검 지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요구사항을 공개한다.
- SBT와 중간 점검 지표를 기준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 기후 서약을 뒷받침할 확실한 **부문별 정책**을 개발한다. 특히 파리협정의 1.5°C 목표에 맞춘 화석연료 및 석탄 관련 정책을 개발한다.
- 기후 이슈와 관련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이사회 차원의 책무**를 설정한다.
- **포트폴리오 차원**의 종합적 리스크 및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포트폴리오 기업 또는 펀드 차원의 **기후 리스크 평가**를 보완한다.
- 포트폴리오 차원의 탄소 발자국 또는 포트폴리오의 기후 관련 조정과 같은 탄소 지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결과 5: 유럽과 아시아의 자산운용사 모두, 자연 손실이 주요 리스크라는 인식을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목적	1. 조직의 전략 및 투자철학과 지속가능성 요소 간 관련성	**대다수의 자산운용사에서 자연 손실을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었다.** 2021년판 RESPOND 보고서에 포함된 자산운용사 중 24개사(유럽 20개사 및 일본 4개사)가 자연 손실이 경제와 사회에 장기 리스크를 발생시킴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책	4. 이슈별 정책	**자연자본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투자에 반영하겠다는 명시적 목표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확실한 요구사항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의결권 행사 관련 정책에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1) 22개사 및 (2) 24개사가 각각 (1) 담수 관련 리스크 및 (2) 산림 벌채 또는 생물다양성 손실 관련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를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요구사항으로 구체화시킨 자산운용사는 (1) 투자 대상 기업에 담수 스튜어드십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 4개사 및 (2) 산림 벌채 및 생물다양성 손실과 관련하여 투자 대상 기업에 지속가능성 분야의 관련 인증(예: RSPO, FSC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유럽 9개사에 불과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사이 유럽의 자산운용사들은 이 기준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술한 이슈 및 관련된 서약을 의결권 행사 관련 정책에 명시한 자산운용사는 유럽 7개사에 불과했으며, 아시아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내용이 전무했다. **자산운용사들의 정책에 해양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이 결여되어 있다.** RESPOND 보고서에 포함된 30개 자산운용사 중 유럽 4개사와 일본 1개사의 책임투자 정책에만 해양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중 1개사만 투자 대상 기업에 세계양식책임관리회(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및 세계해양책임관리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등에서 개발한 다자간 지속가능성 표준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렇듯 해양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고려 부족은 많은 국가가 건강한 해양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포트폴리오	13. 지표 및 목표	**자연자본 관련 지표 및 목표의 사용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자사의 투자가 자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탄소 이외의 지표를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전무했다.

권고안:

전체 자산운용사 대상 권고 사항

-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과학기반을 둔 확실한 **요구사항과 이슈별 의결권 행사 관련 정책**을 개발 및 공시한다.
- 서약과 정책에 **해양의 지속가능성** 관련 요소가 반영되도록 한다.
- 포트폴리오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 및 관리하기 위해 자연자본 관련 **지표와 목표**를 개발 및 사용한다

추가 권고안

아시아의 자산운용사들은 책임투자 역량 구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ESG 역량과 프랙티스를 유럽의 책임투자 선도사들과 비교한 2021년판 RESPOND 보고서에서 적극적 오너십, ESG 역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및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 노력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RESPOND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운용사 및 지속가능성 적용 초기 단계에 있는 운용사를 포함한 아시아의 자산운용사들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및 기타 ESG 이슈에 대한 포트폴리오 회복탄력성 강화와 경쟁력 유지, 고객 요구사항의 충족,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역할 강화를 위해 책임투자 역량을 보다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책임투자의 미개척 영역에는 수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모든 자산운용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책임투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지리공간정보 데이터나 위성 영상과 같은 기술 발전의 산물을 활용하여 자연자본 리스크와 영향을 평가 및 모니터링할 수 있다.
- 과학기반목표 네트워크(Science-Based Targets Network) 등의 기관이 개발한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기업과 포트폴리오를 지구위험한계(planetary boundary)에 맞추어 조정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 및 보고를 위한 과학기반 방법론과 지표의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의 평가 및 보고를 위한 방법론과 지표의 혁신적 개발을 선도한다.

부록: RESPOND 프레임워크

목적		
1. 조직의 전략 및 투자철학과 지속가능성 요소 간 관련성	1	자산운용사가 투자철학 또는 기타 문서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또는 ESG에 관한 자사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가?
	2	자산운용사가 투자 성과, 목표 수익률 또는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또는 ESG 요소가 영향을 미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3	자산운용사가 기후변화가 비즈니스와 사회에 장기 리스크를 발생시킴을 인식하고 있음을 공개하고 있는가?
	4	자산운용사가 자연 손실이 비즈니스와 사회에 장기 리스크를 발생시킴을 인식하고 있음을 공개하고 있는가?
	5	자산운용사가 SDGs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가?
	6	자산운용사가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게이지먼트를 유도하고,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참여 중인 이해관계자 집단의 목록을 공시하고 있는가?
2. 업계 차원의 협력 및 참여	7	자산운용사가 PRI의 서명 기관인가?
	8	자산운용사가 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의 국내 스튜어드십 규약 및 국제 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ICGN) 글로벌 스튜어드십 원칙(Global Stewardship Principles)의 서명 기관인가?
	9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어젠다(The Investor Agenda)를 지지하고/또는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 및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의 비공시 캠페인(Non-Disclosure Campaign)의 서명 기관인가?
	10	자산운용사가 기후변화 관련 기관투자자 그룹(IIGCC), 기후변화 관련 아시아 투자자 그룹(AIGCC),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또는 '지속가능한 청색경제를 위한 금융원칙(Sustainable Blue Economy Finance Principles)'과 같은 협력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가?
	11	자산운용사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TCFD) 권고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12	자산운용사가 어젠다를 제시하는 리더십(thought leadership) 발휘, 관련 행사 또는 연구를 통한 인식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성 또는 ESG 관련 의제를 이끌고 있는가?
	13	자산운용사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공공 정책 개입(예: 탄소가격제, 상장기업들의 ESG 의무 공시 등)을 지지하거나 그러한 개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정책		
3. 책임투자 정책	14	자산운용사가 책임투자 정책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사의 투자 정책에 그에 상당한 내용을 다루는 섹션을 포함시키고 있는가?
	15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 정책이 모든 상장주식펀드와 지역을 다루고 있는가?
	16	자산운용사가 관련 국가의 스튜어드십 규약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17	자산운용사가 자사의 인게이지먼트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는가?
	18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대리 행사 관련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는가?
	19	자산운용사가 책임투자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4. 이슈별 정책	20a	자산운용사가 투자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관련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정책이나 성명을 보유하고 있는가?
	20b	자산운용사가 모든 포트폴리오 기업에 TCFD 권고안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20c	자산운용사가 모든 포트폴리오 기업에 과학기반목표(SBT)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20d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정책에 기후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가?
	21a	자산운용사가 투자 의사결정에 담수 리스크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정책이나 성명을 보유하고 있는가?
	21b	자산운용사가 모든 기업에 담수 리스크를 파악하고 담수 스튜어드십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21c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정책에 담수 리스크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식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22a	자산운용사가 투자 의사결정에 산림 벌채 및 생물다양성 손실 관련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정책이나 성명을 보유하고 있는가?
	22b	자산운용사가 모든 기업에 산림 벌채 및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속가능성 분야의 관련 다수 이해관계자를 위한 표준(예: ASC, MSC, RSPO, FSC, SuRe 등)의 인증을 받거나 그러한 표준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22c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정책에 산림 벌채 또는 생물다양성 손실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식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23a	자산운용사가 투자 의사결정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정책이나 성명을 보유하고 있는가?

	23b	자산운용사가 모든 포트폴리오 기업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분야의 관련 다수 이해관계자를 위한 표준(예: ASC, MSC, RSPO, FSC, SuRe 등)의 인증을 받거나 그러한 표준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23c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정책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한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24a	자산운용사가 투자 의사결정에 노동 기준 관련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정책이나 성명을 보유하고 있는가?
	24b	자산운용사가 모든 포트폴리오 기업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에 개괄된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24c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정책에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한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24d	자산운용사가 모든 포트폴리오 기업에 회사 경영진 및 이사회의 다양성(예: 성별 등) 제고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25a	자산운용사가 투자 의사결정에 인권 관련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정책이나 성명을 보유하고 있는가?
	25b	자산운용사가 모든 포트폴리오 기업에 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25c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정책에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한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26	자산운용사가 고위험/고영향 부문에 대한 부문별 정책을 공시하고 있는가?
	27	자산운용사가 특정 이슈, 부문 또는 기업에 대한 배제 정책을 공시하고 있는가?
	28	자산운용사가 배제 기업 명단을 공시하고 있는가?

절차		
5. 연구, 주식 종목 선정 및 모니터링	29	자산운용사가 전 세계 및 지역 차원의 ESG 동향에 대해 연구하고 그 동향을 투자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 있는가?
	30	자산운용사가 ESG 관련 데이터와 연구 자료의 출처를 공시하고 있는가?
	31	자산운용사가 ESG 이슈별 또는 기준별 스크리닝을 적용하고 있는가?
	32	자산운용사의 ESG 분석이 주식 종목 선정 또는 포트폴리오 구축 절차상의 정량적 조정(기업 가치 평가 또는 포트폴리오 가중치의 조정)으로 이어지는가?
	33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리스크 또는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과학에 기반을 둔 툴, 방법론 또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가?
	34	자산운용사가 ESG 이슈 평가 및 보고를 기업에 요구하고 있는가?
	35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 기업의 ESG 성과를 선도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토하고 있는가?
	36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 기업의 ESG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요 지표(예: 온실가스 배출량, 물 소비량, 교육훈련 시간, 공급망에 대한 감사 등)를 설정했는가?
	37	자산운용사가 자사의 책임투자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38	자산운용사가 자사의 책임투자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6. 적극적 오너십	39	기업이 요구사항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해 일정 기한이 설정된 행동계획을 요구하는 조치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가?
	40	자산운용사가 직전 보고 연도에 ESG 이슈(예: 기후변화, 담수 리스크, 산림 벌채, 생물다양성 손실, 노동권, 인권 등)와 관련하여 기업들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수행했는가?
	41	자산운용사가 이슈 및 인게이지먼트 대상 기업들의 우선순위 설정 방법을 공시하고 있는가?
	42	자산운용사가 인게이지먼트 활동의 결과를 투자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하고 있는가?
	43	자산운용사가 직전 보고 연도에 ESG 이슈와 관련된 집단적 인게이지먼트 활동에 참여했는가?
	44	자산운용사가 협력적 인게이지먼트 활동에서 자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공시하고 있는가?
	45	인게이지먼트 활동이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한 상부 보고(escalation) 메커니즘(예: 주주 결의안, 투자 철회 등)이 있는가?
	46	자산운용사가 직전 보고 연도에 ESG 결의안을 지지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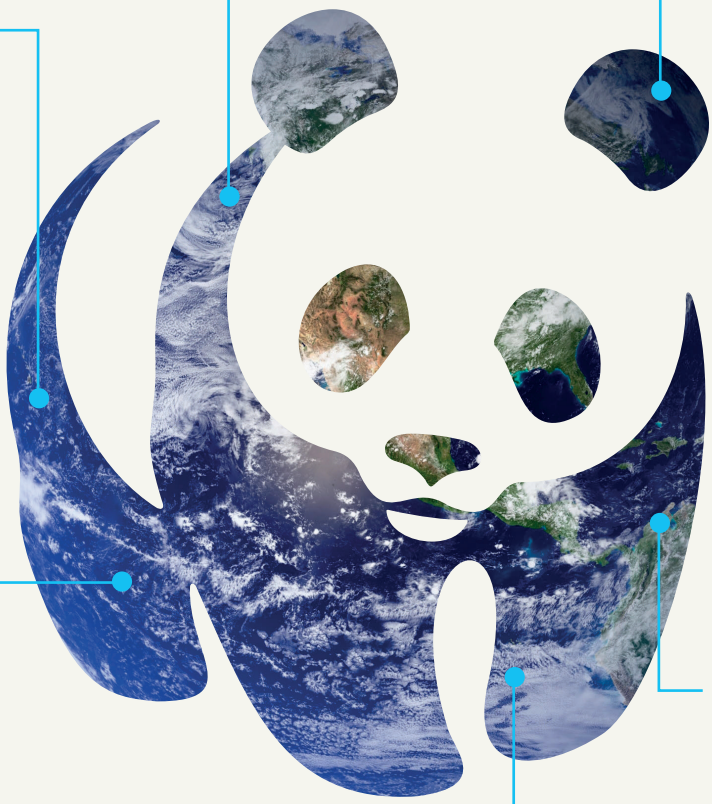
임직원		
7. 거버넌스	47	자산운용사가 책임투자 감독 및 이행 업무 담당자를 명시하고 있는가?
	48	책임투자와 관련된 이사회 차원의 책무가 존재하는가?
	49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이사회 차원의 책무가 존재하는가(예: 이사회의 임무에 기후 리스크 관리의 포함 등)?
	50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이사회 임명위원회(Nominating Committee)의 위임사항(TOR, Terms of Reference) 또는 이사 선임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가?
	51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이사회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의 위임사항 또는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가?
	52	자산운용사가 이사회/고위 경영진 및 포트폴리오 매니저/투자팀 차원의 다양성(예: 성별)을 제고하겠다고 서약했는가?
8. 역량	53	자산운용사가 사내 담당 직원 또는 스튜어드십 전문가 서비스를 통해 전담 책임투자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가?
	54	포트폴리오 검토 및 투자 위원회에서 ESG 팀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55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ESG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56	자산운용사가 고위 경영진(예: 투자위원회, CEO, CIO 등)을 대상으로 ESG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57	자산운용사가 이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ESG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9. 인센티브	58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이사회 보수위원회(Remuneration Committee)의 위임사항 또는 이사회 보수 정책에 사용되는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가?
	59	ESG 지표가 KPI 또는 그 외의 직원 성과 지표의 구성 요소인가?
	60	고위 경영진 및/또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고정 또는 변동보수가 ESG 요소와 연동되어 있는가?

금융상품		
10. 금융상품의 가용성	61	자산운용사가 ESG와 관련된 특정 주제(예: 기후변화, 산림 벌채, 담수, 인권 등)에 초점을 맞춘 상장주식펀드를 제공하거나 BIC(Best-in-Class) 스크리닝을 적용하고 있는가?
	62	자산운용사가 ESG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된 총 운용자산(AUM)의 비율을 공시하고 있는가?
	63	자산운용사가 ESG 요소가 반영된 성과 벤치마크 도구(passive ESG 지수 포함)를 사용하고 있는가?
11. 고객 인게이지먼트	64	자산운용사가 책임투자 접근법 및 책임투자 금융상품의 선호 성향에 관해 고객과 논의하는가?

포트폴리오		
12. 리스크 평가	65	자산운용사가 자사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ESG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66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 차원의 기후 리스크 평가 또는 시나리오 분석(예: PACTA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67	자산운용사가 실시한 시나리오 분석의 주요 내용(선정된 시나리오 및 식별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등을 포함)을 공시하고 있는가?
13. 지표 및 목표	68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 차원의 탄소발자국 또는 탄소집약도를 산정 및 공시하고 있는가?
	69	자산운용사가 탄소 이외에도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ESG 관련 영향(예: 담수 리스크, 산림 벌채, 인권 등)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기타 지표와 목표를 공시하고 있는가?
	70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략 또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에 관해 설명했는가?
	71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를 1.5°C 시나리오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거나 설정할 계획인가?
14. 공시	72	자산운용사가 책임투자 활동에 관한 보고를 최소 연 1회 실시하고 있는가?
	73	자산운용사가 TCFD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공개 보고를 TCFD 권고안에 맞추어 하고 있는가?
	74	자산운용사가 E&S 이슈별로 합산된 인게이지먼트 활동(횟수)를 공시하고 있는가?
	75	자산운용사가 모든 인게이지먼트 활동의 진척 현황을 평가 및 공시하고 있는가?

	76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기록 전체를 공시하고 있는가?
	77	자산운용사가 ESG 관련 결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근거를 공유하는가?
	78	자산운용사가 투자 결과 및/또는 영향(예: SDG에 따른)을 공시하고 있는가?
	79	자산운용사가 ESG 통합이 펀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및 보고하고 있는가?
	80	자산운용사가 자사 펀드의 ESG 성과를 공시하고 있는가?
	81	자산운용사가 자사 포트폴리오의 기후 관련 조정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가?

WWF
지속가능금융



표준

연구 및 툴

규정 및 가이드라인

인게이지먼트 (참여와 협력)

녹색 및 청색 금융 솔루션

역량 구축

WWF(세계자연기금)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위해 활동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입니다.

together possible™ wwfkorea.or.kr

© 1986 판다 도형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기금) ® "WWF" 는 WWF 의 등록상표입니다.

© NASA

WWF · RESPOND -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 기반의 포트폴리오 2021

PANDA.ORG